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교우 : 조정석 집사(네팔 목장), 이창욱 형제
2. 오늘 오후찬양예배는 오후 2시에 '하늘문교회 자립축하예배'로 드립니다. 평양남노회 산하 교회동반성장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오늘 오후찬양예배 후에 마을 전도팀을 위한 교육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주에 공지한 전도팀원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9/14) 청소담당은 네팔목장(박성대 집사)이며, 다음 주일(9/15) 식사담당은 한나목장(이영선 권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월 추천도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상 3권입니다. 2층 예향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 이번 주에는 추석연휴가 있습니다. 추석연휴 기간인 12일(목)-13일(금)까지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는 쉽니다. 추석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뒤편에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9월 8일	9월 15일	9월 22일	9월 29일
예배기도(오전)	신재준 집사	박성대 집사	이현호 집사	박성근 집사
예배기도(오후)	이영선 권사	신경미 권사	강숙여 권사	오승연 권사
주일식사담당	로템목장 (정진숙 권사)	한나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 권사)	엘리목장 (신경미 권사)
토요일청소	라오스목장 (9/7)	네팔목장 (9/14)	몽골목장 (9/21)	카자흐목장 (9/28)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마을(장터, 마트) 전도'를 위해서
2. 2019년도에 세워진 남여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위해서
4. 이창희 권사님, 권용기 집사님, 정옥례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해서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사역지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김은이 ■ 전도사 : 박일선 ■ 사무장로 : 유중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권도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교독문 65번(시편 149편)	다같이
*경배찬송 20장(통 4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438장 (통 495장)	다같이
대표기도	신재준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전 1:2-4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멀지만 가야 할 인생'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주님 말씀하시면'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00

인도 : 허영진 목사

<하늘문교회 자립축하예배>

1부 : 예배

경배와 찬양 찬양인도 : 두나미스 찬양팀	다같이
목상기도 은혜를 구하며	다같이
찬송 369장(통 487장)	다같이
기도	이영선 권사
성경봉독 딤편 3:14-16	인도자
특별찬양	혼성중창팀
설교 '하나님의 교회'	조남주 목사
기도 전노회장, 교회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새빛교회	조남주 목사

2부 : 축하

경과보고 직전노회장, 교회동반성장위원회총무, 신영교회	지용석 목사
자립축하패증정 및 격려금전달	송영범 장로
축사 현노회장, 온누리교회	송영범 장로
답사	허영진 목사
찬송 210장(통 245장)	다같이
축도	조남주 목사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일 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허영진 목사

요 19:17-30 '고난, 영광스런 승리'

금요일 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허영진 목사

'이번 주 기도회는 추석연휴로 인해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30 성령강림절 후 말씀묵상 허영진 목사

(월~금)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때론 울어야 제 맛이다

요즘 들어 소낙비가 잦다.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는 역할도 하지만, 불편함도 감수해야 한다. 늦더위 피약별을 의지 삼아 테라스에 늘어놓았던 빨래들이 때 아닌 수난을 겪고 있다. 개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교회 마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자신들의 거처에도 어김없이 소낙비가 몰아치니 더위에 집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해서 고스란히 비를 맞고 있다. 이럴 때면 외출도 번거롭고 습도가 높아 활동하기에 여간 불편하지 않다. 높은 습도도 힘들지만, 비 온 후에 교회 마당에 나 있는 풀은 또 얼마나 잘 자라나지. 그러나 어쩌랴. 불편해도 도회지 끝자락에 붙은 시골에 한 발 딛고 사는 입장에서 소낙비는 필수불가결이라 불평하지 않기로 한다. 기왕이면 지역마다 골고루 올 것이지. 어떤 곳은 걱정할 상황까지 벌어지고, 어떤 곳은 양수기를 밤새 돌려야 작물이며 건물을 건사할 수 있으니 우리는 여전히 자연 앞에 약자일 수밖에 없다.

한바탕 무섭게 몰아치듯 소낙비가 내리면 피약별에 말라가던 나무들은 생기를 찾고, 온종일 주변 나무에 붙어 있는 매미는 절간에서나 봄직한 묵언수행(默言修行) 중이다. 한 여름 매미는 울어야 제 맛인데, 비 오는 날에는 울고 싶지 않은가 보다. 지난 시간 그랬던 것처럼 땅속에서 수년간 준비해온 날개의 삶이 비에 젖어서 비 그치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그 오랜 시간도 참았는데 이 정도쯤이야 할 성 싶다. 다만 울지도 못하고 한자리에 매달려서 시간을 놓치고 있는 젊음. 그 짧은 성충으로서의 생애를 보노라면 이 하루가 얼마나 애듯할까 싶다. 하필 이렇게 굶은 날 세상에 나와 높은 데까지 오르지도 못하고 그 알팍한 나뭇가지를 붙들고서 밤새 몸을 떨었을 매미. 저 스스로 제 등을 갈라야 살 수 있는 운명이라니 얼마나 가혹한가. 비 그치기를 기도해주고 싶다. 날개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 매미답게 울라고 격려해 주고 싶다.

이런 짧은 생애를 보내는 매미도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젊음이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처절할 수밖에 없는 매미를 위해 비가 잠시 그치면 좋겠다. 날개가 마를 시간도, 바람 한 줄기도 필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은 시간이 오렐 것 같으나 오래지 않은 것이 인생이기도 하다. 매미가 울어야 제 맛 이듯, 우리도 소리 내어 울어야 한다. 소낙비라는 난관에 막혀 울지 못하는 매미의 안타까운 삶이 우리에게 겹쳐서는 안 된다. 일상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 삶 속에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같이 난관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 보자. 매미답게 울라고 격려해 주듯이, 무너진 삶에 자리에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될 것이다. 지금은 모든 게 질척한 한여름. 생을 마친 매미는 길에 툭툭 떨어지고 그때는 여지없이 불뼉더위 속에서도 건조한 기류가 감지되게 마련이다. 실하고 아름다운 가을은 그렇게 우리 곁에 슬며시 다가오고 있다.

Written by 허영진